

# 병상자원관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석준**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보건의료자원은 크게 인력, 시설, 장비 및 관련 지식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인력의 문제는 비교적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 왔다. 의사 인력의 경우 OECD와 비교하여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 지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OECD 국가들의 활동의사수가 3.0 수준인데 비하여 대한민국은 2.0 이하라는 결과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사수(정확하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의 문제라며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선행 의료제도의 개선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인식을 갖고 논쟁을 벌여 사회적 의제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바 있다.

그 반면에 병상 자원의 문제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 총량 규제와 같은 이슈로 간간이 토론이 되곤 하였으나 그다지 큰 사회적 시선을 끌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지난 대선 당시 특정 정당에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접근한 바 있으나 사회적 이슈로까지는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병상이라는 주제, 그 가운데서도 병상의 총량을 중심으로 논쟁을 이끌어 갔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정책결정가나 일부 학자들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판단되었으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 겪게 되는 병상 관련 시설의 질이 낙후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종합병원 6인 병실에 입원하면 실제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12명이 좁은 병실에서 지내게 된다. 이러한 병실에 입원해 본 분들은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6명의 환자 중 1명이라도 상태가 악화되

거나 누군가가 새벽에 검사를 하여야 하면 어수선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6인의 환자, 보호자까지 포함하면 12인 이상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관련 제도를 찾아보았더니(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의 별표4), 우리나라의 병상 관련 규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규격을 제시해 놓은 규정이 전부 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수는 이러한 문제에 불편을 느끼고 크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병상수의 적정 기준 마련과 더불어 관련 시설의 질 문제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가 등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질적 수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디딤돌이 조속히 놓여지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에 이번 호 정책현안에서는 병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세 편의 원고를 게재하였다. 우선, 김유석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자원 관리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관리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교수는 ‘외국의 병상자원 감소정책과 시사점’을 통해 지금이 바로 증가하고 있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근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관리 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 정책의 흐름과 병상자원 공급의 특성, 그리고 병상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관리 정책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밖에도, HIRA 연구에서 심사연구팀 노연숙 부연구위원은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이라는 주제로 심사기준 결정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원기술정책연구팀 최윤정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승인제 연구’에서 안전성·유효성 또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 수준이 낮거나 불확실한 의료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강조하였다.

진료경향분석에는 이풍훈 주임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변화’에 관한 원고가 게재되었다. 해외동향에는 평가연구팀 박춘선 연구위원이 ‘의료의 질 영역에서 OECD 회원국의 환자경험 측정’을, 심사연구팀 이성우 주임연구원이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을, 약제평가연구팀 전하림 주임연구원이 ‘주요 외국의 노인 대상 의약품 사용 관리’에 대한 원고를 작성함으로써 현재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